

광주·전남 자영업자 대출 44조 돌파...고금리에 '초긴장'

금리 1%p 오를 때 이자 부담 연간 7500억원 늘어나 잠재 취약 차주 증가...안심전환대출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 사태 3년을 겪으면서 광주·전남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44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액이 75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전성범 과장과 김주리 조사역이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가계부채 및 취약차주 현황과 잠재리스크 점검' 조사연구보고서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 가계부채는 광주 47조8000억원·전남 46조5000억원 등 9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보다 광주 가계부채는 16.4%(6조8000억원), 전남은 15.5%(6조3000억원) 증가했

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가계부채는 광주 52.2%·전남 49.7% 증가하며, 가계부채 평균 증가율의 3배 수준을 웃돌았다.

자영업자 가계부채는 광주 7조7000억원·전남 10조7000억원 등 18조4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에서 광주 16.1%·전남 23.0%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 비율은 3년 전보다 각각 3.8%포인트·5.3%포인트 늘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계부채 18조4000억원과 개인사업자 대출 26조원을 합해 모두 4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대출의 66.9%, 가계대출의 76.0% 비중을 차지하며, 기업 및 가계대출 총계(124조7000억원)의 3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비중이 은행권보다 많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2금융권이 더 높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42.5%·전남 69.0%로, 예금은행(광주 40.7%·전남 18.1%) 비중을 웃돌았다.

2019년 말 대비 지난해 6월 자영업 가계대출 증가율도 비은행은 광주 53.4%·전남 54.8%로, 예금은행(광주 49.0%·전남 30.9%)보다 높았다. 특히 신용카타회사 등 기타금융 가계대출 증가율은 광주 57.7%·전남 53.4%에 달해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취약차주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에서 다중채무를 지닌 동시에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이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 취약차주 가운데 자영

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7.0%·전남 31.7%, 지난 2019년 말 비중보다 각각 2.5%포인트·10.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 취약차주는 광주 33.9%·전남 50.6%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광역시 0%·도지역 15.8%)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6차례 연속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금리 1.0%포인트가 오르면 지역민들은 연간 7500억원 가까운 이자액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가계대출 금리가 갈수록 오르면 가정하면 금리가 1.0%포인트 인상할 때 연간 추가 이자 부담액은 광주 3705억원·전남 3765억원 등 747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9월 기준 금리 4%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간 이자액은 광주 1조9105억원·전남 1조8582억원이었다.

여기에 1%포인트 오른 5% 금리를 적용한 이자

액은 광주 2조2810억원·전남 2조2347억원으로, 이전보다 각각 광주 19.4%(3705억원)·전남 20.3%(3765억원) 늘었다.

한은은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고려해 연간 추가 이자 부담액을 산출했는데, 지난해 6월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예금은행 78.5%·비은행예금취급기관 91%에 달했다.

전 과장은 "광주·전남 취약차주는 자영업자에서 많았으며, 예금은행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예금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며 "잠재 취약차주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차주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자영업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청년창업 특별보증 등 공적 신용보증 제도를 확대해 자영업자의 금융거래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은행권,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인하

NH농협,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 0.8%p 인하...연 5.12~6.22% 우리은행, 신잔액 코픽스·고정금리 전세대출 통해 금리 낮추기로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 은행권이 속속 주담대대출 및 전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금리 상승기 고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포인트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과 이달 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먼저 인하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연 4.69%,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 4.55%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담대 및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감면금리 항목과 폭을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확

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 역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또 신잔액코픽스(6개월)를 기준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신잔액코픽스는 신규코픽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더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이 가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전세대출에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또 13일부터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시 부수거래 감면금리(연 0.40~0.60%포인트)와 분부조정금리(연 1.15~1.80%포인트)를 적용, 고객이 사실상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세계적 자동차전문지 선정

정의선(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세계적 권위를 보유한 자동차전문지 모터트렌드(MotorTrend)가 정의선 회장을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2023)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모터트렌드는 이날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을 공개하고, 정의선 회장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모터트렌드는 매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50인의 파워리스트를 공개하고, 그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1인을 '올해의 인물'로 명명한



다.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는 모터트렌드 에디터들과 자문위원들의 엄격한 평가와 비공개 투표를 통해 작성되고 순위가 결정된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은 세계와 산업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또 "정의선은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CEO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실적이면서도 친근한 혁신가이자 비

저너리"라는 정 회장에 대한 주변의 평가도 전하면서 "그는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그와 그의 비전, 위대한 기업이 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터트렌드는 현대차그룹 내에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정 회장의 실천적 리더십도 조명했다.

이밖에 정 회장의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모터트렌드는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시작했다면 현대차는 다양한 모델과 스타일, 가격대를 갖춘 멋진 전기차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시켰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설 맞이 '이웃사랑 캠페인' 실시

광주·곡성 공장 인근 독거노인 등에 제수용품·식료품 전달

금호타이어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곡성 공장 인근 독거노인 가정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의 이웃사랑 캠페인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명절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활동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1

만4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설 명절에도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인근의 200명에게 전달될 10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준비했다. 해당 물품은 광주 광산구와 곡성 입면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된다.

금호타이어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과 마음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2년부터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매년 지역민을 위한 '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2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직원들이 겨울철 혈액 수급난 해결을 돕기 위해 헌혈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주 "헌혈 온기 확산됐으면"

12~17일 노사합동 헌혈 캠페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2일부터 17일까지 노사합동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각종 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혈액 수급에 보탬을 주고자 마련됐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와 적십자 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의 협조로 진행되며, 기아는 사내 주요 거점에 헌혈 차량을 배치함과 동시에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겨울철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보탬이 되고자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아의 헌혈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곳으로 헌혈의 온기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I페퍼스 홈 경기 직관하고 연 6% 적금 들자

페퍼저축은행 '배구사랑 적금' 출시

페퍼저축은행은 AI페퍼스 배구단 홈 경기를 직접 관람한 고객에게 연 6.0%(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AI 페퍼스 배구사랑 정기적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AI PEPPERS 배구사랑 정기적금은 AI페퍼스 홈 경기장인 페퍼스타디움 방문 관람 시 제공된 쿠폰 코드를 수령한 고객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페퍼저축은행은 2022-23 도드람 V리그 시즌 기간 남은 홈 경기마다 관중 모두에게 가입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를 관람하는 고객들부터 연 6%의 특별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6일부터 디지털페퍼 앱에서 가입 가능하다.

본 상품은 정액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가입 기간

은 6개월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경기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 특별금리 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페퍼스타디움을 방문하는 AI페퍼스 팬분들에게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은 이번 시즌을 맞이해 페퍼스타디움을 새롭게 단장하고 풍성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페퍼스타디움은 배구 경기장 중 가장 큰 크기의 모니터로 최상의 경기 관람 경험을 선사하며, 일부 좌석의 티켓 가격 인하를 통해 관람 문턱을 더욱 낮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설맞이 KJ카드 행사

13~31일 마트·주유소·온라인서

설 대목을 앞두고 광주은행이 KJ카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펼친다.

광주은행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설날은 언제나 설레-빛' 행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상품권 5만원권을 준다.

주유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쓰면 100명에게 2만원 상당 주유권을 제공한다.

온라인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2만원 상당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 전체 업종에서 50만원 이상 쓰는 5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준다.

행사 참여는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와 스마트뱅크, 모바일앱뱅크, 고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2365.10(+5.57)
코스닥	710.82(+1.05)
금리(국고채 3년)	3.466(-0.006)
환율(USD)	1245.80(-0.40)